**자신을 자유롭게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영어통번역학과 융합소프트웨어를 복수전공하고 있는 김연진입니다! 23년의 삶을 뒤돌아보며 저의 인생을 ‘도전과 발전’, 두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많은 도전을 하였고 실패와 성공을 떠나 도전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도전 중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도전은 바로 ‘소프트웨어 복수전공’ 입니다. 문과 학생이었던 저에게 소프트웨어 복수전공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트렌드라고 생각하였고 직접 전공을 하며 소프트웨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깊어 졌습니다.

한편,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며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대학 입학 후 이과 친구들보다 수학을 자주 접하지 못하다 보니 이산수학과 같은 수학 관련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컴퓨터 구조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처음 배우다 보니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실습하고 공부하였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스스로 구글링하거나 주변 분들께 여쭤보며 저의 능력을 키워 나갔습니다. 더 나아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싶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동아리활동과 대회 참여 등 다양한 도전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에 대해 깊이 있게 오랫동안 배워보고 싶다!’라는 목표와 애정이 생겼고 이 분야로 진로를 설정해 스스로 발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